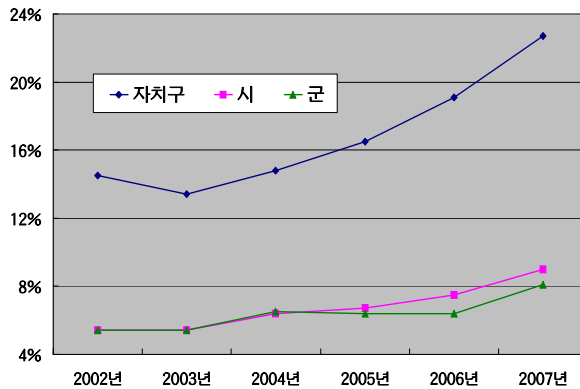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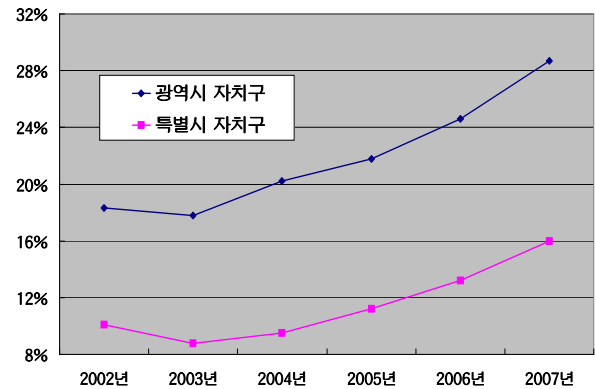
<표5> 기초자치단체 유형별 총 예산중 「사회복지관련 국고보조사업 예산」 비율  
(단위 : %)

구 분	'02년	'03년	'04년	'05년	'06년	'07년
전체(광역+기초)	7.7%	7.6%	8.8%	8.9%	10.0%	12.1%
기초자치단체	8.4%	8.3%	9.8%	10.3%	11.4%	13.9%
시(77)	5.4%	5.4%	6.4%	6.7%	7.5%	9.0%
군(88)	5.4%	5.4%	6.5%	6.4%	6.4%	8.1%
자치구(69)	14.5%	13.4%	14.8%	16.5%	19.1%	22.7%
특별시 자치구(25)	10.1%	8.8%	9.5%	11.2%	13.2%	16.0%
광역시 자치구(44)	18.3%	17.8%	20.2%	21.8%	24.6%	28.7%

<시·군·자치구 사회복지 국고보조사업 비율>



<특별시·광역시 자치구 사회복지 국고보조사업 비율>



### 3) 지방자치단체 자체사업 예산의 감소

지방예산은 세출성질에 따라 경상예산, 사업예산, 채무상환, 예비비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. 자체사업예산은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예산을 제외한 것으로, 지방에서 일반적으로 가용재원과 유사한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.

총예산 중 자체사업예산의 비율은 2005년까지 증가하다가 2005년을 정점으로 2007년까지 급격한 감소 추세에 있다.(2005년 30.5% → 2006년 28.5% → 2007년 26.6%) 이는 2004년 이후 저출산·고령화 대책에 범정부적 역량이 집중되면서 복지부문에 대한 국고보조사업의 증가로 이에 매칭되는 지방부담금이 급증한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.

그 결과,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, 자체사업 예산 감소로 지역주민을 위한 고유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워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려움이 증대되고 있는 상황이다.